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9월 20일(금)

...(음력 8월 18일)...

Пятница

20 Сентября 2024 г.

№ 37 (1210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22일은 추분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주, 2024-2025년 난방 시즌 준비 마무리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다가오는 난방 시즌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유틸리티 네트워크(수도관, 난방망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업 열원이 제공되고, 운영 복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팀이 구성되었다. 중앙 난방에 연결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석탄 배달이 조직되었다.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보일러 주택의 작동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및 통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주택공공경리부는 자원 공급 기관 및 관리 회사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작업은 지역 전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예산에서 상당한 자금이 할당되었습니다. 바깥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주택에는 항상 따뜻해야 하므로 난방이 중단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현재까지 사할린주에서는 12.9km의 난방망, 28.4km의 상수도 망, 6.7km의 하수도 망이 이미 교체되었다. 다가오는 시즌의 보일러 하우스 가동 준비는 86% 완료되었다.

"우리의 주요 임무는 사할린 주 주민들에게 울거울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 예산에서 시설 현대화를 위해 할당된 자금은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정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주택 및 공공시설부 장관 나탈리아 쿠프리나가 말했다.

중앙 난방이 없는 주택 거주자들을 위해서는 석탄 배달이 조직되었다. 각 지역마다 계약업체가 선정되었고 석탄 채굴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연료 구매 비용을 미리 상환하는 메커니즘도 가동되고 있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회 지원 계정을 신청해 사회 보장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회 지원 센터(<https://csp.admsakhalin.ru>) 또는 사할린 주 사회복지부(<https://msz.sakhalin.gov.ru>)의 웹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사회 복지국에 문의할 수 있다.

사할린주 주택 및 공공경리부가 연료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달은 계속되며 10월 1일까지 모든 지자체가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게 된다.

사할린주의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133 명의 전문가와 1,093 대의 장비를 포함한 408 개의 긴급 복구 팀이 구성되었다. 모든 중요한 생명 유지 시설에는 백업 전원 공급원이 제공된다. 난방 시즌 준비 문제는 주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할린주, 연말까지 약 42km 지방 및 지방 자치단체 간 도로 수리

주정부 회의에서 사할린 주 교통 및 도로부 장관 막심 조골레브는 지역 도로 현대화에 대해 보고했다. 2024년에는 약 42킬로미터의 지역 도로를 시운전할 계획이다.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거리와 도로망을 수리하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계획은 이미 향후 5 년 동안 작성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유지하고 도로 공사의 품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지역 교통부 책임자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동안의 주요 작업은 네벨스크 - 토마리 - 사흐초르스크 공항 구간 고속도로에 계획되어 있다.

"파루스노예, 크라스노고르스크, 아인스코예, 올호브카 마을에 있는 토마리와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의 약 24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가 2024년 말까지 아스팔트 포장될 예정이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홉스크 구역에서는 오헬레 강과 한코탄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할린 남부에서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시네고르스크 및 페트로파블롭스코예-워스 크레센스코예-아니와-솔로비요브카 지역 고속도로 구간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말까지 쿠릴열도에서 9km 이상의 지역 도로가 수리될 예정이다."라고 막심 조골레브 장관이 말했다.

올해는 연방 프로그램인 "농촌 지역 통합 개발" 덕분에 이투루프, 쿠니쉬르 및 쉬코탄의 여러 지역 도로 구간도 보수될 예정이다. 크라보자보드스코예와 오토라다 마을과 쿠릴스크-레이도워 노선 고속도로에서도 재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섬 지역의 도로 수리 및 건설 작업은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개인 통제하에 있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테크 보안 2024 컨퍼런스 개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정보보안을 주제로 하는 '사할린테크 보안 (SakhalinTech Security) 2024' 컨퍼런스가 사할린에서 개최된다. 디지털 경제 국가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 20개 지역에서 약 4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식을 교환하고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보보안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20일에는 특수 사이버 훈련장에서 실습이 진행된다.

사할린 학교 졸업생 4분의 1, 사할린국립대학교에 입학

올해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학교에서 입학 목표 인원수에 도달했다. 사할린 주내 학교 졸업생의 약 25%가 이 대학을 선택했다. 올해 사할린국립대에는 전국 27개 지역과 외국 6개국에서 온 젊은이들도 입학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정부 회의에서 입학 캠페인의 결과가 논의되었다. 올해 총 1,900명 이상이 1학년 학생으로 입학했다.

이번에 인기가 가장 높은 학과는 석유 가스학과 응용정보학과였고 국립대 측이 전해왔다. 이 학과 입학지원자 간 경쟁률은 5대1로 가장 높았다.

사할린, '세대, 지역의 목소리' 프로그램 결과 요약

사할린, "세대의 목소리, 지역들" 프로그램에 사할린주의 여러 지역 수십 명의 청년 정책 실행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청년사업청에서 진행된 집중교육과정은 나흘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와 지역 내 실행을 위한 글로벌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고, 팀을 이루어 지역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숙련된 전문가들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시작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2024 영주귀국 및 정착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사업 지원 신청 접수가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계획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자로 270명을 선정하기로 했고, 이 결과는 지난 9월 16일 대한적십자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다.

현재 희망지역 주택 수요조사 중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설명회는 10-11월에 있을 예정이며 이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주관한다.

올해 대상자 중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은 총 41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주유노사할린스크 출장소를 통해 유자격자 사할린동포(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 12명이 지원접수하여 선정되었다. 그중 최고령 지원자는 올해 만 100세, 나이가 적은 어르신은 만 78세다. 2024 영주귀국 및 정착 사업 대상자 명단은 주유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올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4.1.16. 공포 / 7.17. 시행)이 개정되어 영주귀국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기에 향후 영주귀국 신청 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다. 또한, 내년 영주귀국 신청서 접수는 4월 30일로, 현재 6월 30일에서 두 달 앞당겨진다는 걸 상기시킨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조사 및 배정, 입국 등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1세 사할린동포들의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비인간적인 결정이라고 수많은 동포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순신 기자)

최근 본사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대해

알고자 하는 동포가 많아졌기에, 개정된 사할린동포법을 아래에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사할린동포법)

[시행 2024.7.17.]

[법률 제19997호, 2024.1.16.,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032-585-3288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6.>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

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16.]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 4. 그 밖에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 16.]

제6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2024. 1. 16.>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 16.]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부칙 <제19997호,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모 저 모

'오드노클라스니키(동창생)', "사할린 주의 달" 프로젝트 시작

소셜 네트워크 '오드노클라스니키(동창생)'에서 러시아 유일의 섬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소셜 네트워크는 주문화부와 함께 "사할린 주의 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사할린 주문화부 "문화의 섬"의 문화 및 관광 포털에 의해 보도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도시의 날 맛이 프로젝트는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오드노클라스니키'의 «문화의 섬» 그룹 구독자는 이 지역의 문화, 전통 및 흥미로운 관광 루트에 대한 대화형 소개에 초대된다.

이 초대에 응하면 '오드노클라스니키'에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기원, 삼형제 바위가 생긴 역사, 신화의 주인공인 강력한 곰 등 이 지역과 관련된 전설에 대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명소와 가상 관광 루트에 대한 긴 글도 게시되었다. 사용자들은 테마 아바타 액자와 극동 또는 잡색의 물개 모양의 라가 스티커를 즐길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사할린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방문하고 싶은 흥미로운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Одноклассники» запустили проект «Меся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дноклассниках теперь можно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единственного в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оцсеть запустила проект «Меся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ртал минкуль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а культуры».

Проект,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гор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длиться с 13 сентября по 13 октября. Подписчиков группы «Острова культуры» в ОК приглашают к интерактивному знакомству с культурой региона, его традициями и интересн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маршрутами.

Теперь в ОК можно осмотреть анимированные ролики о легендах, связанных с регионом: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явлении скал Три Брата, героев мифов — могучем медведе и другие.

Также опубликованы лонгриды 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х региона и виртуаль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Пользователям точно понравятся тематические рамки на аватары и стикеры с ларгой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ли пёстрой, нерпой.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о Сахалине с помощью онлайн-теста. Таким же способом они могут выбрать интересные места для посещения.

전설적인 시네마토그래피 교향악단, 사할린에서 첫 공연

러시아 국립 아티스트 세르게이 스크립카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영화 교향악단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옥짜브리 공연·영화관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연했다. 이는 주문화·고문서 보관부의 보도부에서 전했다.

이 음악 축제는 영화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열렸다. 이 콘서트는 러시아 문화부의 대규모 프로그램인 '전 러시아 필하모닉 시즌'의 일환이다.

“세계 영화 음악의 진주» 프로그램은 음악 명작의 무한한 바다를 여행하는 여정을 표현했다. 첫 곡부터 관객을 유명 영화의 분위기에 빠져들게 했다.”라고 보도에서 언급되었다.

방문객들은 니노 로타, 헨리 만치니, 이사야크 두나예브스키, 알렉산드라 파흐무토프와, 안드레이 페트로브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 공연은 사할린의 문화 생활에서 다채로운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예술에는 국경이 없으며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выступил легендарн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сцене кино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Октябрь»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ось выступ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народного артиста России Сергея Скрипки.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региона.

Праздник музыки прошел в честь празднования 100-летнего юбилея коллектива. Концерт - часть масштабной программы Минкультуры РФ «Всероссийские филармонические сезоны».

«Программа «Жемчужины мировой киномузыки» представила собой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бескрайнему океану музыкальных шедевров. С первой ноты коллектив погрузил зрителей в атмосферу знаменитых кинокартин»,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Слушатели 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творчеством Нино Рота, Генри Манчини, Исаака Дунае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ы Пахмутовой, Андрея Петрова. Концерт стал не только ярким событием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а, но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того, что великое искусство не имеет границ и может объединять люд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и культур.

사할린 보호소 "개와 고양이"가 손님 접대

사할린 주민 40여 명이 9월 14일 유기동물 보호소 '개와 고양이' 개방의 날에 방문해 네발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 방문객들은 보호소 견학, 다과회,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고 Sakh.online에서 보도했다.

'개와 고양이' 동물 보호소의 개방의 날에는 수년간 이 단체를 도와온 숙련된 자원봉사자들과 이제 막 좋은 일에 동참하기로 한 신규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이 행사는 인간의 학대로 고통받은 동물들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호소 자원봉사자들이 지적했듯, 인간의 작은 친절과 애정은 동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접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가능한 자주 개최해야 합니다.”라고 '개와 고양이'보호소의 책임자 이리나 사위츠카야가 말했다.

이날 누구나 털복숭이 친구들을 빗겨주거나 산책을 시키거나 간식을 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으로 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приют «Пес и Кот» принял гостей

Более 40 неравнодушн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посетили приют для бездомных животных «Пес и Кот» в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14 сентября, чтобы провести четвероногих друзей и просто прият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Гостей ждала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экскурсия по приюту, дружеское чаепитие и даже розыгрыш призов, сообщает Sakh.online.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в приюте для животных «Пес и Кот» собрал как опытных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помогают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 и новичков, только решивших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добрым делам.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социализации животных, которые пострадали от человеческой жестокости.

Как отмечают добровольцы приюта, немного человеческой доброты и ласки помогают животным доверять и идти на контакт.

«Мы периодически устраиваем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людей, чтобы порадовать их, чтоб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до проводить по мере возможности», — поделилась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июта «Пес и Кот» Ирина Савицкая.

В этот день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г помочь пушистым друзьям: вычесать их, погулять с ними или угостить лакомством. А некоторые даже задумались о том, чтобы взять нового члена семьи.

사할린의 특별한 어린이들에게 건강 가이드 제공

사할린 주에서는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성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어린 섬 주민들에게도 건강 가이드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주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주한인협회, 김치축제 개최

지난 1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42주년을 맞아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그중 하나는 김치축제였다. 축제는 한민족이 즐기는 추석에 맞춰 진행되었다. 이날 축제 주최자인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도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김치축제가 도시행사 중 인기가 가장 많고 규모 큰 행사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날 나드사진 시장은 200명을 대상으로 한 김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해 진행자의 설명에 따라 직접 백김치와 김치를 만들어보았다. 주최측에서는 미리 준비해 놓은 절인 배추, 양념 등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타악기 팀의 북공연,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의 무대가 관객들의 기분을 돋구었다. 또한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 민속놀이 등이 인기가 많았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이에는 약 700명이 참가했다.

김치축제의 많은 참가자들은 축제에 관한 좋은 글과 사진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아래에 직접 행사에 참여한, 새고려신문사 통신원 포구다예브 드미트리의 글을 게재한다.



김치는 정말 맛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식이 널리 유행하면서 한식 중 가장 인기 있는 요리의 김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찾지 못한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 한국 전통 요리는 한국 문화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음식 중 하나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김치는 꽤 오랫동안 수요가 있었고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필수식품이 되었다. 필자 또한 극동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바롭스크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부터 김치를 사주셔서 이 유명한 한국 요리를 접할 수 있었다. 나중에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선생님들로부터 김치의 오랜 역사와 한국에서 김치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배웠다.

한국 문화를 접하는 동안 한식 카페와 식당에서 주로 김치를 사서 여러 종류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인기 있는 한국 요리를 직접 할 기회는 없었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의 날을 맞아 사할린 한인협회에서 개최하는 김치 축제 일환으로 김치 담그기 마스터 클래스를 연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이에 참가신청했다.

김치 담그기 마스터클래스 참가자들은 재료와 조리 도구는 이미 갖춰진 채로 참석만 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도왔고 요리 기술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최측의 배려와 행사 준비 수준에 감탄했다.

김치 담그기 마스터클래스는 한식 요리 명인 김 류보위 아나톨리에브나와 리 알렉산드르 감독이 진행했다. 이들은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고, 각 과정을 설명했다.

요리 과정은 언뜻 보기에는 어렵지 않았는데 필자는 진행자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라 첫 단계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냈다. 마스터클래스 참가자들에게는 전통 김치 외에도 고추 가루를 넣지 않은 백김치 만드는 법도 알려줘 매우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날 한민족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추석기간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한 덕분에 더 더욱 밝은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김치는 정말 맛있다.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국악신문, 추석 맞아 국내외 동포들에게 한복 전달

한복수출업체 박은주 여사 8월에 이어 9월 50여 벌 기증

고려인 · 사할린 동포들에게 한복 전달

(주)국악신문(대표이사 기미양)이 추석을 맞아하여 국내외 동포들에게 한복을 전달했다. 한복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박은주(59세)여사가 매달 한복을 50벌 기증해주고 있다.

지난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주광역시에 7천명이 살고 있는 (사)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에 한복 20벌에 이어 이번 추석날 맞아하여 20벌이 전달되었다.

파주사할린동포회, 양주사할린동포회, 잠시 방한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복 30여 벌이 전달되었다.

한편 전국 28지역에 3천 5백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하여 살고 있다.

(사)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 어린이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라서 입는 법도 잘 모르지만 한복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들도 좋아한다. 인증샷을 러시아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은 "20년 전 조국에 처음 와서 고향(논산)을 방문해서, 처음 받은 선물은 한복이었다. 우리 부부는 그때 문중에서 선사한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게 되었다.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속되는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아마 한복을 받은 동포들도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21년 사할린 동포지원 특별법 개정안으로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매년 사할린 동포2세대들이 영주귀국하여, 현재 3차에 걸쳐 900여 명이 정착하고 있다. 사할린에서 인천, 안산, 파주, 시흥 등에서 부모를 보살펴드리고 있다. 박범식(49세)도 부모님(박승의, 김소자)이 사는 파주에서 고국에서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아직 한국말을 모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이 추석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한복 입은 사진을 남겼다"고 전했다.

안산사할린동포회 이미지(80세)여사는 "모스크바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면서 손주들에게 한복을 전달했다. 처음 입어본 한복이 너무나 잘 어울렸다. 아직 한국을 잘 모르는 손주에게 같이 한복을 입으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복을 선물해주신 업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7면에 계속)

동양과 서양 사이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정 마리나 작가

지난 13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컨퍼런스실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패션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정 마리나와의 만남이 있었다. 이 행사는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한 '사할린의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40대 초반의 정 마리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이다. 2004년 처음으로 실시된 부산 동서대의 '사할린 한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돼 이 대학 패션학과에 입학했고, 영문학도 복수전공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동서대 유학생으로서 91대학교(30개국) 학생들이 참여한 국제패션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당시 본선에 오른 학생들은 주로 유럽, 미국 학생들이었는데 한국에선 유일하게 정 마리나가 진출했다. 그만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 대표의 만남 참가자들에게 마리나를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마리나를 자주 아티스트, 일러스트 작가, 작가라고 부른다.



보통 만남의 주제는 주인공이 정하는데 이번 만남의 주제는 '사이'로 정했다. 마리나 작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호 동양어문학교(현재 동양감나지아)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한국어였고, 이는 나중에 한국 유학 희망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서대 패션디자인과와 영문과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후 마리나는 서울에서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다양한 한국 브랜드 및 기업들과 함께 일했다. 그녀는 대기업의 의뢰를 받아 의류의 그래픽 소재와 비주얼 콘셉트를 개발하고 한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유니폼 개발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정 마리나 작가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예술대회에 참가했으며 수상자로서 그의 작품은 지난 4년간에 뉴욕, 파리, 런던, 베이징, 스톡홀름 등 세계 여러 나라 수도에서 전시되었고, 예술 업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스스로도 작가로서의 첫 개인 전시회가 부산의 한 갤러리에서 열렸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부산은 마리나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바로 이 도시에서 전문성 개발과 학생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이다. 마리나의 작품은 전통적인 형식과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한다. 마리나의 예술은 우리 세상을 둘러싼 미묘한 측면을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본인의 작품에 구현된 아이디어를 가장 완벽하게 전달하는 전치사인 '사이'를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로 선택했다. 마리나의 작업은 동양과 서양, 아날로그와 디지털, 현실과 상상, 화려함과 평범함, 전통과 현대 사이를 넘나들고 있어 '사이'라는 주제가 매우 잘 어울린다. 마리나는 아이디어의 깊이와 완성도가 인상적인 두 가지 주요 컬렉션을 소개했다. 그 전에 그는 자신이 러시아와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할 수 있어서 예술인으로서 정말 행복하다고 언급했다.

마리나의 첫 번째 컬렉션은 '마이 뷰티풀 마라'이다. 마라는 젊은 여자의 그리스 이름으로, 그리스어로 '영원히 아름답다'는 뜻이다. 이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젊은 여자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를 청중에게 친숙하게 전달한다. 두 번째 컬렉션 Buy the days도 심오했다. Buy the days는 사람들이 하루를 '구매'해야 한다면 일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저자의 성찰을 담은 일기이다.

마리나 작가는 이날 만남에서 자기 창작품을 소개하면서 창의적 사고의 과정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여 관객들이 예술 세계에 대한 따뜻한 감정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했다.

정 마리나 작가가 소개를 마친 후 관객들과의 일문일답이 있었다. 이날 참가자 모두가 마라가 그려진 성탄절축하카드를 받았고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한 관객은 마리나의 기념품을 받았다.

새고려신문사의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프로젝트의 이번 행사의 분위기 역시 따뜻하고 좋았다.

(배순신 본사 기자,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견습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노워시비르스크 뮤지컬 극장, 사할린에서 공연

노워시비르스크 뮤지컬 극장의 배우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투어는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체호프 명칭 사할린 국제극장 무대에서 진행된다. 섬 주민들은 '로마에서 휴일', '지참금', '브레멘 음악대', '사랑과 비둘기' 등의 공연을 보게 된다.

순회 공연단은 솔리스트, 합창단, 발레 무용수, 기술 전문가 등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워시비르스크 뮤지컬 극장은 러시아에서 유명한 뮤지컬 극장 중 하나로, 클래식 오페레타와 뮤지컬 코미디, 현대 실험 뮤지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Гвон Су Ен получил звание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рое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звания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эрии.

Всег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66 «Почетных граждан города».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приеме мэра Сергея Надсадина, посвященном 142-лет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радоначальник назвал имена трех жителей, чьи заслуги отмечены в этом году. Это директор ООО «Остов», известный в регионе строитель Гвон Су Ен (Владимир Михайлович), тренер-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по плаванию города Владимир Винокурников, педагог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1 Янина Гимро.

«То, как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годня – результат наше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Не устаю повторять, что главное богатство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 это жители. Творческ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евероятно талантливые и трудолюбивые», – отметил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 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стровная столица устремлена в будущее и создает новое. Например, здесь развиваются беспило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оздается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есть лучш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в регионе.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верен, чт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удет не только лучшим город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о и станет витриной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Визуальный художник Марина Тен: «Между...»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 орган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остя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лич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нтерес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личностями, узнать об истор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людей искусства. Так, в пятницу, 13 сентябр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К «Гагарин» главным героем встречи выступила успеш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ра искусства, визуальный художник и дизайнер Марина Тен.

Мастер арт-искусства вырос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илась в МБОУ СОШ № 9, именуемо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ей. Любимым предметом Марины Тен в школе был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что в последствии повлияло на выбор ВУЗа. Обладая уверенными знан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арина Тен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 Донсо в г. Пусан н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Дизайн одежды». Успешно окончив вуз со степенью бакалавра искусства и дипломом по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у, Марина Тен начала 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в сфере дизайна одежды в Сеуле, работая с различ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брендами и фирмами. Дизайнер по заказу крупных фирм разрабатывала граф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и визуальные концепции одежды, проводила разработку корпоративной формы, которой в Корее уделяетс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ряду с этим Марина Тен развивала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карьеру, создавая арт-объекты,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лучившими признание не только в Корее, но и в крупнейших культурных столицах мир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работы Марины Тен выставлялись в таких городах, как Сеул, Пусан, Инчхон, Лондон, Пекин, Стокгольм и Москва. Сам автор произведений с гордостью отмечает, что перва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в качестве художника состоялась в Пусане, имеющей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в жизни Марины Тен,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там произошло 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становление и проходили студенческие годы. Творчество Марины Тен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поскольку художник работает как и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так и в более современном, переводя свои картины в цифровые изображения. Искусство Марины, как художника передает тон-



кие грани, которые окружают наш мир.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автор выбрал в качестве темы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предлог «между», который наиболее полно передает идеи, воплощенные в работах Марины. В картинах присутствуют элементы как Западной, так и Восточной культуры, грани между реальностью и иллюзией, обыденностью и великолепием, традиционным и современным.

У художника заявлены две основные коллекции, которые поражают глубиной и завершенностью идеи. Первая коллекция Марины Тен – my beautiful MARA, в которой через своего персонажа, красивую девушку с необычным греческим именем, передает зрителю свои идеи,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водя знакомство с культурой различных уголков нашего мира. Вторая коллекция buy the days также не лишена глубокомыслия. Buy the days является дневником-размышлением автора на тему того, как бы выглядела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если бы людям приходилось «покупать» дни.

Работы и рассказ Марины Тен поражают нестандартностью и творческим полетом мысли автора.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глубину заложенных в своем творчестве идей, в ходе выступления, художнику удалось ясно и доступно изложить ход творческой мысли, позволив каждому гостю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никнуться теплыми чувствами к миру искусства.

По заверш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традиционно, Марина Тен ответила на интересующие гостей вопросы и вручила подарки из собственной коллекции аксессуаров авторам лучших из них.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рост популя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повсемест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трендов на корейскую кухню, привели к тому,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нельзя найти человека, которому было бы не знакомо кимчи – одно из популярнейших блюд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имволо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а также объектом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кимчи пользуется спросом довольно давно и для многих россиян стало обязатель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рациона. Поскольку я вырос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не повезл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знаменитым корейским блюдом ещё в детском возрасте – родители покупали готовое блюдо у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Хабаровске. Позднее, в процессе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вузе, на занятиях я узнал от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о том, насколько давнюю историю имеет кимчи и о различных способах приготовления блюда, практикуемых в Корее.

За время знакомства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я пробовал разные виды кимчи, покупая блюдо, в основном в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х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Однако, готовить популярное блюд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самому, мне не доводилось.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когда я узнал о том, что на праздновании дня гор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ООСК проводит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непременно решил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м событии и научиться самому готовить популярное блюд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ридя на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имчи, я оказался впечатлен уровнем подготовки мероприятия – от участников мастер-класса требовалось только присутствие, а ингредиенты и кухонн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уже были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лены волонтерами РООСК и РМООСК. Кроме тог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астер-класса участникам оказывали поддержку в приготовлении, поэтом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ли даже люди с отсутствием особых кулинарных навыков.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началось с музыкаль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Битулим". Затем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оздравил мэр –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Надсадин, также выразив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РООСК за организацию фестиваля. После поздравительных слов от мэ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оим выступлением зрителей порадовали танцев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Ариран, представив номер с корейски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танцами. Далее на сцене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ОСК Па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вырази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за поддержку



в организации фестиваля и поздравив все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с 142-летие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города приходится на начало одного из важнейших коре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 чхусок, также посвятив фестиваль этому событию.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ОСК заявила, что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является подарком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в честь вышеуказанных праздников и объявила старт фестиваля. Ведущими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имчи выступил режиссёр и артист драмы Ли Александр и мастер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Ким Любовь Анатольевна. Любовь Анатольевна собственным примером обучала участников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имчи, а Александр давал комментарии и руководил общим процессом. Всего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около 200 гостей, включая мэра, который вместе с жителями города занимался приготовл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А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собрал более 700 зрителей, которые мог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дегуст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юда, понаблюдать за мастер-классом,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икладным искусством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грах.

Процес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оказался не таким трудным, как казалось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 первых этапах я совершил несколько ошибок, зрители, заметившие мои кулинарные старания, подсказали, как исправить положение и приготовить кимчи по заявленному рецепту. Также, кром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имчи, участников мастер-класса обучили приготовлению неострого пэк кимчи, поэтом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и насладиться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й могли даже те, кто не является поклонником острых блюд.

В завершение,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щиться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в кулинарии.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в мастер-классе я получил яркие праздничные эмоции и усвоил рецепт приготовления одного из любимых блюд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Человеческое отношение к «зайцам»

Сеул, 19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В период с 2019 по июль этого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190 926 случаев уклонения от оплаты проезда на крупны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линиях, таких как КТХ,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операторов.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езаконных поездок на поездах в среднем на 4,12 миллиарда вон (3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в год,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Kogail.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операто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правляет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ыми поездами КТХ, а также поездами Самаул и Мугунхва. Наиболее частым видом незаконной поездки было отсутствие у пассажира билета. В поездах, эксплуатируемых Kogail, в этом году с января по июль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51 112 таких случаев на сумму 3,79 миллиарда вон. В 3 105 случаях у пассажира был обнаружен фиктивный билет. Статья 10 Закона 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м транспорте гласит, что пассажир поезда,

не оплативший требуемый тариф, должен заплатить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30-кратной стоимости проезда за пройденное расстояние. Это применимо во всех случаях, когда у пассажира н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билета на поездку, в том числе когда у него есть билет на другую поездку.

Но операторы поездов часто применяют гораздо более мягкую политику, устанавливая только надлежащий тариф плюс половину стоимости законного тарифа, если кондуктор решит, что пассажир не купил билет из-за простой ошибки. Например, если у человека нет билета на поездку стоимостью 50 000 вон, его или ее могут попросить заплатить 75 000 вон за незаконную поездку.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как правил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тариф должен налагаться сверх вышеупомянутого штрафа, который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оставил бы 1,5 миллиона вон, но многие кондукторы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штрафа, если решают, что у пассажира не было преступных намерений.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отметили День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считает самой неотложной проблемой ситуацию с разделёнными семьями Юга и Севера. Пхеньян отказывается даже от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ов, 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должает поиск путей реше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Об этом 15 сентября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Ким Ён Хо, зачитав послани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Дня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 здании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KBS. Как подчёркивает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из 130 тыс.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 РК, подавших заявку на поиск близких на Севере, ежегодно умирают около 3 тыс. человек, так и не встретившись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живых остаются лишь 40 тыс. членов таких семе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же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сширения на весь мир зоны проведен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о судьбах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одилось в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е. Он заявил, что РК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над привлечением внимания к этой проблем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и над укреплен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72,3 тыс. абитуриентов подали заявки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72.351 человек подали заявку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в медицин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страны в 2025 учебн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набора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квот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школьной успеваемостью. Это на 15.159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нять 3.010 абитуриентов, что на 60,8% больше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ена более низкая конкуренция: на одно место претендует 24,04 абитуриента,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30,55).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ает повышение интереса к медицинским вузам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городе Инчхоне. Число заявок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в дан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выросло на 44,4% до 22.333 человек. Схожая ситуация отмечается и в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ах страны (41,7%, 33.215 абитуриентов).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среди поступающих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и медицинские факультеты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Качхон (Кёнгидо), Сонгёнган (Сеул) и Инха (Инчхон).

Realmeter: Рейтинг президента РК упал до 27%

27% граждан РК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ют работу Юн Сок Ёля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низ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за недельный период. Предыдущий мин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 29,3% был зафиксирован в первую неделю августа 2022 года. 68,7% дают отрицательную оценку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2.503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оведённого с 9 по 13 сентября агентством Realmeter. Полож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сократилась на 2,9%, а отрицательная выросла на 2,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ей неделей.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2,0%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тдельного опроса 1.001 взрослого жителя страны, проведённого 12-13 сентября, рейтинг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составил 33%, а крупнейш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 39,6%.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Очередная сессия ВНС КНДР начнётся 7 октября

11-я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14-го созыва состоится 7 октября 2024 года в Пхеньяне. Об этом 16 сентября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На предстоящей сессии будет вынесен вопрос о поправках к Конституции, о принятии законов о лё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блема контроля за качеством продукции. В январе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он Ён предложил конституционно закрепить за РК статус главного врага, а также допустить «возвращ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в состав КНДР в случае войны. Тогда он призвал внести в основной закон положения о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и отказаться от упоминания ми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Севера и Юга. Заседание возглавит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Чхве Рён Хэ. В нём такж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Кан Юн Сок, Ким Хо Чхоль и друг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цент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Пусане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2024»

Пус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проведёт 24 октября «Фестиваль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2024».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200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ят павильоны по различным отраслям, среди которых судостроение, автомобили, туризм, деловой туризм и т.д.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лучшие компании Пусана,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молодёжи, и павильоны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реднего и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ов. Банк Пусана BNK намерен выплатить компаниям, принимающим но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в штат, субсидии в размере 1 млн вон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Эта мера коснётся случае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RKI

Пхеньян и Москва продолжаю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диалог

Сеул, 15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Ён встретился с главо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и пообещал углубить дву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МИ, отслеженных в Сеуле.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в годовщину редкой встречи Ким Чен Ён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космодроме Восточный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и, в ходе которой Ким пообещал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Москве. По данным ЦТАК,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в пятницу Ким Чен Ён и секретарь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Москвы Сергей Шойгу провели «широки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неуклонного углубл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и укреп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целях защиты интересов взаим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также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туации».

Стороны достигли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го консенсуса» п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вопросам. Ким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в политике, экономике и культуре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тся после его переговоров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с Путиным в июне. Он пообещал продолжить расшир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в духе договора о партнёрстве, подписанного двумя лидерами во время их июньского саммита,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пункт о взаимной обороне.

Кореец выжил после удара молнией и длительной остановки сердц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ударила молния, что привело к остановке сердца на 40 минут.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врачи смогли спасти его жизнь, что эксперты называют «практически чудом».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на юго-западе Кореи. 5 августа 29-летн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Ким Гван Хэн шел после обеда домой после лекции по повышению квалификации для педагогов. В это время года в Корею часто бывают муссонные дожди, а потому погода была плохой. В тот день над Кванчжу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около трех тысяч молний, и одна из них поразила Кима, когда он проходил рядом с деревом.

Молодой учитель упал, у него остановилось сердце.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его лежащим на земле обнаружил прохожий, который вызвал службу спасения. Те доставили пострадавшего в больницу Университета Чоннам. Врачи сразу определили, что у Кима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не билось сердце. Как само сердце, так и легкие были в плохом состоянии. По мнению медиков, сердце не работало не менее 40 минут, а обычно хватает пяти минут, чтобы в мозгу начались необратимые изменения. Врачи потом признались, что в ходе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осмотра они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шансов на оживление почти нет, но продолжили борьбу за жизнь педагога, поместив его в реанимацию.

Усилия врачей и медсестер фактически вернули Кима с того света.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опасения, медики смогли снова запустить сердце, организм начал потихоньку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а через десять дней кореец смог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ышать.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сильно ослаб, испытывал сложности при еде, но в целом дело пошло на поправку, а 2 сентября его выписали из клиники. Специалисты комментируют, что произошло «практически чудо», признавая, конечно, что без быстрой реакции прохожего, который нашел пострадавшего, бригады службы спасения и особенно медперсонала клиники Ким не смог бы выжить.

Сам же Ким Гван Хэн после выписки из больницы сердечно поблагодарил своих спасителей и перечислил затем 10 миллионов вон (около 8500 долларов) на нужды клиники. «Что сказать: меня вытащили с того света, дали снова возможность жить. Никакие слова не смогут выразить ту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ую я чувствую. Я понял, что этот мир непредсказуем, но я буду жить теперь так, чтобы не сожалеть ни о едином моменте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на земле», - сказал он в беседе с журналист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Феномен корейской моды

Сеул, 19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В один из майских дней магазин одежды в токийском районе Сибуя был переполнен молодыми японскими покупателями, нетерпеливо ожидавшими в очереди открытия магазина. Это событие ознаменовало запуск первого магазина корейского модного бренда Matin Kim в Япони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японской розничной группой Parco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универсамом Hyundai.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влекло более 3000 посетителей, установив рекорд по самой высокой посещаем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модного рор-ап магазина в стране. За следующие два месяца продажи магазинов Matin Kim и 10 других брендов K-fashion составили 3,3 миллиарда вон (примерно 2,8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Растущая популяр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моды среди молодых японских потребителей привела к появлению множества платформ K-fashion на японских онлайн- и офлайн-рынках.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орговый центр Korean women's fashion успешно запустил сервис, позволяющий продавцам расширяться в Японии. Появление платформ K-fashion в Японии усилилось с 2020-х годов. Модная платформа Mediquitous запустила NUGU в Японии в 2020 году и с тех пор укрепила свое присутствие: объем транзакц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стиг 46 миллиардов вон. Тем временем Musinsa, еще одна ведущая корейская платформа моды, в 2021 году основала свою японскую дочернюю компанию Musinsa Japan, управляющую как магазинами, так и онлайн-тор-

говым центр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Musinsa заявил: «На Японию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40 процентов нашего бизнеса, и она служи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базой для дальнейшей экспансии на другие рынки».

Япония, крупный центр моды,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объемом рынка в 100 триллионов вон, что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в Южной Кореи. Во врем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ума Японии в 1980-х годах появились выдающиеся дизайнеры, которые вывели японскую моду на мировой уровень и повлияли на тенден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и. К началу 2000-х годов «J-Flow» и «Nippon Style» стали популярными на корейской модной сцене. Недавнее возрождение K-fashion в Японии объясняется растущим интересом к моде корейских знаменитостей и широким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IT-устройств. Корейские модные тенденции быстро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среди чувствительных к моде молодых японских потребителей, чему способствует увеличение контента о K-fashion. В недавней статье Nikkei отмечалось: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в Японии. В стране, где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ются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продукты,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ивают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усиленные звездами K-рор, набирают популярность по всему миру. В Японии молодёжь, занимающаяся «оши-кату» (поддержкой своих любимых кумиров), является движущей силой этой тенденц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не 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по трём законопроектам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и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составляющая парламентское большинство, не могут согласовать позиции по трём спорным законопроектам. Один из них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езависим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дозр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первой леди Ким Гон Хи. Её подозревают в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незаконным финансовым операциям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цен на акции Deutch Motors, автосалона BMW в РК, и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 выборы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торой законо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отношен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ую подозревают в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 расследование гибели в июле 2023 года солдата морской пехоты с целью снять подозр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офицера высокого ранга,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ся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гибель солдата. Третий законопроект обязы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о оказыва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жителям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и провинций. Действующий закон возлагает эту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а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Оппозиция намерена вынести три законопроекта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 конце этой недел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обещает бойкотировать голосование.

KBS World

Алексей Белик вновь возглав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новь назначен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путаты региональной Думы поддержа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редложени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сле победы на выборах 6-8 сентября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дставил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народных избранников кандидатуру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назначить на эту должность действующ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высшег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органа региона Алексея Белика. С 2018 он исполнял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9 году стал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 Мы трудимся с Алексеем Васильевичем плечом к плечу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моей рабо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 эти год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действовало слаженно и заслужило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избирателей и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читаю, если дело спорится, значит, нужно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с прежней командо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епутаты поддержали предложенную губернатором кандидатуру.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ит реша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которые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ереселение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та тарифов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ших городов и сел,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ы будем уделять также повышению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Депутат Дмитрий Вдовин отметил, что назначение Алексея Белика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хранению высоких темп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в регионе и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тысяч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могут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ереехать в светлые и теплые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квартиры. Важно, что такж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реализация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создаютс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мест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поделился Дмитрий Вдовин.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намерен сохранить прежний состав доказавшего свою высокую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аютс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2024-2025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верш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едстоящему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В районах проводятся работы на коммунальных сетя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резервные источники подачи тепла, сформированы бригад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оператив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Для жителей, не подключенных к центральному отоплению, организована доставка угля.

— Перед началом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все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обеспечить работу котельных, исключить проблемы в сетях и коммуникациях. Министерство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нимается этим вопросом совместно с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управля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во всей области, и на эти цели из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знач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низких температур в домах всегда должно быть тепло, перебои недопустимы,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области уже заменили 12,9 км тепловых сетей, 28,4 км водопроводных и 6,7 км сетей водоотведения. Котельные готовы к работе в предстоящем сезоне на 86%.

—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плом и комфортом этой зимой. Выделенные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редства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объектов помогли улучшить системы отопления и внедрить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больше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ы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каждый дом был готов к зиме,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Для жителей домов без центрального отопления организована доставка угля.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выбраны подрядчики и заключены контракты с угледобыва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Заказать уголь можно через горячую линию ЖКХ (8-800-302-0065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или *0065 (с мобильного) или напрямую у поставщика.

Кроме того, предусмотрен механизм для возмещения расходов на покупку топлива авансом.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данную субсидию, необходимо оформить социальный счет 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соцзащиту. Э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https://csr.admsakhalin.ru>) 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s://msz.sakhalin.gov.ru>), либ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рганы соцзащит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ажно,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ет постоянный мониторинг запасов топлива. Доставка продолжается, к 1 октябр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необходимый банк топлива.

Отметим, перед началом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формированы 133 аварий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бригады, в которых вошли 1093 специалиста и 408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Все важные объекты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обеспечены резерв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Вопрос подготовки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находится на контрол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о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коло 42 км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дорог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доложил о модерн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дорог. Так, в 2024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орядка 42 км дорог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 Мы 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дорог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тановились лучше. Во многих районах сегодня ремонтируют улично-дорожную сеть, строят новые дороги. План этих работ уже расписан на будущую пятилетку. Главное, не сбавлять темпы и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качеством дорожных работ,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транса, основные работы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автодороге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в том числе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будет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но почти 24 километра полотна в Томаринском и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ах — в селах Парусное, Красногорск, Айнское и Ольховка.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мостов через реки Отселе и Ханкотан. Также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продолжатся работы на участках региональных автодоро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инегорск и Петропавловское — Воскресенское — Анива — Соловьевк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до конца года отремонтируют более 9 км дорог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 сообщил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Стоит отметить, в текущем году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также будут приведены в порядок несколько участков местных автодорог на Итурупе, Кунашире и Шикотане. Работы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ыполнят в селах Крабовоздовское и Отрада, на автодороге Курильск — Рейдово.

Отметим,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и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орог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ходятся на личном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детский сад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мет первых малышей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новый детский сад в юж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 ЖК «Горизонт»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уже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Детский сад примет первых 190 малышей.

— Каждый новый детский сад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детей развиваться, учиться и социализироваться, а для родителей —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их дети находятся в заботливых руках.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в раннем возрасте закладываются основы личности, формируются ценности и привычки. Этот детский сад станет местом, где наши дети с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ать знания, но и развивать социальные навыки, учиться работать в команде и находить друз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детский сад рассчитан на 480 мест,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корпусов на 240 мест и 12 групп в каждом корпусе. Возрастной состав воспитанников — с 1,5 до 7 лет. Открытие объекта обеспечит потребность в дошко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жителей ЖК «Горизонт», п/р Лиственничное, «Восточка» и близлежащих территорий. Сейчас здесь идет работа по комплектованию детского сада воспитанниками и персоналом.

— Пообщавшись с директором, с персоналом, осмотрев этот детский садик — сделал вывод, что строители свою работу выполнил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и качественно. Интересный дизайн, современный пищеблок, оборудованные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группы. Уверен, детям будет комфортно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Одним словом, современный, хороший детский сад, очень нужный в этом районе,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Название детского сада выбирали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утем голосования. Большинство голосов отдали названию «Умка».

— Для нас это, конечно, долгожданный объект. Теперь мне не нужно стоять в пробках по утрам, чтобы отдать своего малыша в сад. Здесь очень красиво, для наших малышей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расивая мебель. Уверена, что моему малышу здесь очень понравится, — поделилась Ксения, жительница микрорайона.

Отметим, в ЖК «Горизонт» возводится не только современное и комфортное жилье, но и социальная и коммуналь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новом микрорайоне буду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два корпуса детского сада строится школа на 550 мест. Готовится к запуску котельная.

Путевки на любительский лов лососей теперь можно оформить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Острова.65»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появился новый сервис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Теперь оформить путевку на лов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можно через «Острова.65».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ширили возможности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 Новый сервис значительно упрощает процесс выдачи путевок для выл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рамках любитель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нтуитивно понятный интерфейс сервиса позволит каждому рыбаку-любителю запланировать свой досуг, потратив лишь 30 секунд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утевок.

Сервис удобен тем, кто любит заранее планировать свое время, а также тем, кто хочет ловить больше трех хвостов на человек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вается любительское рыболовство. Если раньше в регионе было доступно лишь два участка для добычи по путевкам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симы, горбуши, кеты и кижуча), то в 2024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участков увеличилось до 16. Пользователи рыболовных участков создают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я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 Рыбалка — это не просто хобби, это важная часть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Мы стремимся сделать этот процесс максимально удобным и современным. Новый сервис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путевок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Острова.65» — это шаг в будущее. Теперь жители смогут за считанные секунды выбрать место и время рыбалки, не выходя из дома. Это не только удобство, но и эффект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ресурсами, —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Снегирев.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О «Рыбаки Сахалина» Любовь Стримжа отметила, что подобный сервис сахалинцы ждали давно. Путевку можно оплатить дистанционно и получить документ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Козлов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лицензионного лова по путевкам. По его мнению, в отличие от 3 или 5 хвостов горбуши, которые разрешается поймать сахалинцам, этот вид промысла более прозрачный и контролируемый.

— Учтено количество выписываемых путевок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понятно, сколько рыбы добывается на таком участке, и контролирующим органам проще отслеживать такие вещи. А рыбаку не надо опасаться, если в сетку попало больше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он вполне может выписать себе путевку и поймать рыбы столько, сколько ему необходим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в этой истории,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мысел может организовываться как на горбушу, так и на кету и другие виды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Поэтому, безусловно, за лицензионным ловом большая перспектива. Я уверен, что мы совместно достигнем расшир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таких мест в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аксим Козлов.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 компания 2ГИС нанесли на карту места для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Там отображена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рыболовном участке, его пользуетеле, а также указаны контактные номера для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по вопросам браконьерства. Жители смогут оставлять комментарии, делиться фотографиями своих уловов 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рыбалки.

Больше 100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покупку школьной формы к началу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мер поддержки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К началу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более 1000 семей уже получили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покупку школьной формы. Для родителей с невысокими доходами это явля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й поддержкой.

Компенсация за школьную форму — одна из ключевых мер,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равного доступа к образованию для всех детей,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атер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х родителей. Это важный шаг к тому, чтобы каждый ребенок мог начать учебный год в новой форме и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начало учебного года — это не только радостное событие, но и серьезная финансовая нагрузка для многих семей. Компенсация за школьную форму — это не просто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это забота о будущем наших детей.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развивать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следить за тем, чтобы каждая семья могла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и мерами,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Двое детей жительн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лентины Прокопович в этом году пошли в школу. Старший сын — в 4-й класс, а средняя дочь — в 1-й. Чтобы собрать детей в школу из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было потрачено порядка 50 тысяч рублей. Благодаря данной мере поддержки семье компенсировали 20 тысяч рублей,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ло финансовую нагрузку.

— Мы пользуемся данной мерой уже 4-й год подряд. Я подаю документы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даже ходить куда-то не надо. Прикрепляю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также фото чеков, и мне компенсируют данные затраты. Деньги на счет поступают быстро вскоре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поделилась Валентина.

Отметим,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семей с детьми способствует достижению целей и задач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лодые семьи с низким достатком могут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товаров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на покупку детской коляски, авансом компенсируют средства за путевки в детские лагер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консультаций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ГКУ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лефон колл-центра: +7 (800) 201-00-99.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장, 추석맞아 제천시 정착 고려인들 만나 애로사항 경청

이상덕 청장, 12일 자녀 출산 고려인 동포엔 축하와 덕담도 건네 재외동포지원센터 거주 동포에 격려품 전달... “행복 가득한 명절되길”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추석을 앞둔 12일 제천시에 정착해 사는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건네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국내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고려인 동포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제천시는 이날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이 청장과 김창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명절 행사를 열었다.

이 청장은 본격 행사에 앞서 자녀를 출산한 동포 반가이 예브게니와 차가이 나탈리아 부부(고려인 1호 출산(24.6.6)), 플레이 파벨과 플레이 울가 부부(고려인 2호 출산(24.7.4))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 청장은 이들 부부에게 “고생한 산모와 가족들, 그리고 예쁜 아기가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네면서 국내로 이주해온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구감소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추석맞이 행사에서 이 청장은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 정체성을 지켜온 것을 격려하고 모국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려인동포는 출산 및 노동 적령 인구가 많은데다 제천시에서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한 고려인동포 대부분은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제천시 재외동포 지원센터가 문을 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고려인 동포 세 가구가 각각 자녀를 출산했다.

이 청장은 “행복 가득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재외 동포지원센터에 입소한 고려인들에게 생필품 세트 등 격려품을 전달했다.

센터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60여명이며 대부분 맞벌이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이날 행사는 퇴근시간에 맞춰 진행됐다.

제천시는 앞서 11일 제천 향교에서 고려인 동포 자녀 17명을 대상으로 한복 입어보기 체험과 송편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진행했다.

재외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동포가 87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초기 정착 준비를 돕는 ‘국내 동포 정착지원 안내서’를 배포하고,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제천시처럼 적극적인 재외동포 이주를 지원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국과 국내동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국악신문, 추석 맞아 국내외 동포들에게 한복 전달

한복수출업체 박은주 여사 8월에 이어 9월 50여 벌 기증 고려인·사할린 동포들에게 한복 전달

(2면의 계속) 양주사할린동포회 최나타샤(75세) 여사는 “이번에 한국국적을 받고 영주귀국하여 안산에 정착한 아들네가 고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추석날에 우리 3세대 가족이 모두 한복을 받게 되어 기쁘다. 한복을 입고 가족사진을 남기려고 한다. 손주들에게 뜻깊은 추석날로 기억 될 것이다. 감사한 마음 전한다.”이라고 전했다.

국악인들이 지난달 8월 15일 광복절 맞이 한복 전달 기사를 보고 “이번 한복의 날을 기념하여 고려인 학생들에게 한복을 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가오는 10월 21일은 ‘한복의 날’이다. 한복의 날은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의 우수성과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97년 시작됐다. 이날은 한복을 입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최근 드라마나 케이팝(K-pop)에서 비롯된 한류 열풍이 우리 복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한복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복을 패션이자 놀이문화로 받아들이며 즐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경복궁이나 북촌, 종로 거리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 관광객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파리 올림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통문화에서 비롯되는 조형의식은 그 민족을 상징하는 정신이고 가치이다. 한글, 한복, 한식, 한옥 등에서 전통문화의 전형성이 표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형성은 세계 속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국인의 ‘아이디카드’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다음 세대에서도 계승이 되는 것이다.

2018년 매년 10월 셋째 주부터는 한복의 날 기념 행사와 지역 한복 축제가 결합되어 행사명이 ‘한복 문화 주간’으로 변경되면서 기념일보다는 축제의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2022년, 한복문화주간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17개국 36개 도시에서 한복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편, 2021년에는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억지 주장에 분노한 재미 교포 청소년 단체인 재미차세대협의회(AAYC)가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시에 기념일 제정을 청원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0월 21일을 ‘한복의 날(Korean Hanbok Day)’로 선포하였다. 이후 미국 뉴저지주 클로스터시,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에도 ‘한복의 날’이 선포되었다.

동포들에게 한복을 선물하고 싶은 국악인이나 독자들은 국악신문에 연락을 하면 된다. (02-922-1411)

(국악신문, 기미양 객원기자)



(주)국악신문이 추석 맞아 국내외 동포들에게 한복 전달했다.사진은 (사)고려인마을 (대표 신조야)에서 한복을 전달 받은 고려인 어린이들이 추석빔으로 받은 한복을 입고 고마움을 손으로 만든 하트로 보내고 있다. 지난달 20벌에 이어 이번 추석에는 10벌이 전달되었다. (사진=고려인 마을) 2024.09.10.



(주)국악신문이 추석 맞아 국내외 동포들에게 한복을 전달했다.사진은 전달 받은 한복을 입어보는 전국사할린 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과 배우자 모습. (사진=국악신문) 2024.09.10.

[우리말로 깨닫다]

벗이 있어서

기쁘다와 즐겁다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용하는 논어의 구절이 있습니다. ‘학이시습 불역열호, 유봉 자원방래 불역락호(學而時習 不亦說好 有朋 自遠訪來 不亦樂好)’라는 표현입니다. 배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멀리서 찾아준 벗을 만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즉 개인의 감정이 기쁨이라면, 함께하는 감정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이라면 혼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즐거움이라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말에는 느낌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한자보다 순우리말로 했을 때 감정이 살아나는 말도 있습니다. 그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표현은 ‘벗’입니다. 친구라는 말은 왠지 딱딱하고, 동무라는 말은 왠지 어색합니다. 친구(親舊)의 의미가 ‘가깝게 오래 사귀어 사람’이라는 의미여서일까요? 벗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입니다. 한 번 만나도 벗일 수 있습니다. 서로 통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사이라면 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과 동무라는 말은 변질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때도 사용합니다. ‘아니 이 친구가!’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친구를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동무는 더 심각합니다. 말동무나 길동무나 어깨동무의 느낌은 좋은데, 동무에 이념을 얹으면 심각한 표현이 됩니다. 아무나 동무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동무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몇 달 전 큰아와 아내가 작은 디저트 카페를 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아들이 음식에도 취미가 있어서 차린 가게입니다. 카페를 하면서 가족 모두는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사가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더우면 더워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장사가 어렵습니다. 점점 나아지기 바랍니다. 단골이 늘기 바랍니다. 한번 온 사람은 남이지만 두 번 오면 단골입니다. 또 오고 싶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먹어본 디저트에 행복을 느끼고, 가게에서 가볍게 나누는 인사가 하루 종일 기쁨으로 남기 바랍니다.

가게를 하면서 많은 분의 도움과 지지를 받았습다. 아니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외진 곳에 있는 가게에 굳이 찾아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손님은 우연히 들른 분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어서 온 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해외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국어 선생님과 제자들이 오랜만에 귀국하여 저를 찾아줍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저를 찾아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구실로 오는 것보다 카페로 오는 게 더 편한 분도 많은 듯합니다. 다섯 명 정도밖에 앉을 수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기쁘게 사진을 찍습니다. 저를 만난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분을 보면서 저도 행복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간다는 것,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한 일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것은 쌍방향 모두 그렇습니다.

문득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다시 또 찾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따뜻해져야겠습니다. 더 넓어져야겠습니다. 아, 벗이 참 좋네요. 나이도, 시간도,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리운 벗이 더욱 그림네요. 그림다 말을 하니 더 그림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조제실 관리자는 가족들이 어린 환자를 더 쉽게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사의 진료, 검사 또는 재활 치료를 위한 예약을 돕고, 제때 약을 받고, 기타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다. 즉, 어린이 건강 관리가 이드가 되려면 심리학자의 교육 모듈을 받아야한다. 이에 관한 전문가들은 올해 준비될 것이다.

У особе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появятся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теперь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не только взрослым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но и юным островитяна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смогут облегчить заботу в семьях о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ах. Они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или реабилитацию, помогут своевременно получить лекарства и решить другие медицинские вопросы.

К ним - особые требования. То ес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ать детским проводником здоровья, потребуется пройти обучающий модуль с психологом. Специалисты уже будут готовы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 주민들, "생명을 향한 만보" 캠페인에 참여 초대

Сахалин 주 주민들은 9월 29일에 열리는 "생명을 향한 만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сахалин 주 체육부 홍보실에서 보도되었다.

이 행사는 세계 심장의 날, 전 러시아 걷기의 날, 전국 건강한 심장 주간 등 몇몇 중요한 날에 맞춰 진행된다. 이 이벤트는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는 모바일 걸음 수 계산 애플

리케이션 '걷는 사람'을 이용한 백그라운드 걷기(하루 동안 한 사람의 모든 걸음 수) 팀 대회의 시작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전국 건강 연맹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들은 대회 기간 동안 최적의 운동, 영양 및 음주 요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건강생활스타일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할 것이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зывают пройти «10000 шагов к жизн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акции «10000 шагов к жизни»,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29 сентя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ция приурочена сразу к нескольким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дням: Всемирному дню сердца,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ходьбы, а также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деле здорового сердца.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же станет стартом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фоновой ходьбе (все шаги человека за день)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по подсчёту шагов «Человек идущий», проводимых с 28 сентября по 5 октября.

Участникам будет помогать Лига здоровья нации. Они дадут советы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оптимального двигательного, пищевого и питьевого режима в период соревнований, а такж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ЗОЖ.

“오로라” 항공, 유즈노사할린스크-하얼빈 노선 '겨울'시즌 항공권 판매 시작

오로라 항공은 겨울 기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하얼빈까지의 노선 항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항공사 보도부를 통해 발표되었다.

2024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매주 수요일 07:20에 출발하여 07:35(현지 시간)에 하얼빈에 도착할 수 있다. 돌아오는 항공편으로는 08:45에 하얼빈을 출발하여 14:30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착륙한다. 표기 시간은 출발 및 도착 공항의 현지 시각이다.

“수하물이 없는 항공권 비용은 8,000루블리부터, 수하물이 있는 항공권 비용은 10,000루블리부터 시작됩니다. 요금은 편도 기준입니다. 운임의 좌석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공편은 항공기 DHC-8로 수행됩니다.”라고 보도에 명시되었다.

하얼빈에 도착한 후 승객은 중국 전역을 계속 여행하거나 편리한 환승편을 이용하여 한국 및 일본으로 여행할 수 있다. 제3국으로 여행하는 환승 승객의 경우 간소화된 입국 규정과 도시 출국 시 무비자 환승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중국 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로라 항공의 동계 시즌 유즈노사할린스크-베이징 편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다.

«Аврора» открыла «зимнюю» продажу билет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Харбин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объявила об открытии продажи билет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Харбин на зимний период. Об этом заяв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еревозчика.

С 30 октября 2024 года по 26 марта 2025 года каждую среду улететь из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можно будет в 07:20 и прилететь в Харбин в 07:35. Вылететь из Харбина - в 08:45, приземлить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14:30. Время - местное в аэропортах вылета-прилета.

«Стоимость авиабилета без багажа — от 8000 р, с багажом — от 10 000 р. Тарифы указаны в одну сторону.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по тарифу ограничено. Полеты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на воздушном судне DHC-8»,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Прибыв в Харбин, пассажиры могут продолжить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Китаю или,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удобными стыковками, долететь до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Для транзитных пассажиров, следующих в третьи страны, действуют упрощенные правила въезда и безвизовый транзит с выходом в город, подробности и условия которых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в консульстве КНР.

Рейсы Аврор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екин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и четвергам.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